

중세국어 ‘밧/민’[及]의 분포 양상 및 의미

- 《소학언해》의 용례를 중심으로

양 연(한국학중앙연구원)

1. 서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국어의 ‘밧’은 ‘A, B 밧 C’와 같이 동일한 성분을 연결할 때 쓰여 그 용법이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중세국어의 문헌 자료 검토해 보면 ‘밧’의 소급형으로서의 ‘밧/민’은 그 분포 양상이 현대와 달리 다양하게 나타났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NP와 밧/민 NP’의 구성만 주로 소개되었으나 중세국어, 근대국어 문헌에는 이와 다른 여러 가지 구성이 보인다.¹⁾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중세국어의 ‘밧/민’[及]의 분포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밧/민’은 한문의 ‘及’을 직역한 결과이기 때문에 직역 자료 중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언해 자료 중에 직역 자료는 소학류, 행실도류, 불경류, 역학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중세국어의 《소학언해》의 용례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소학언해》는 다른 문헌보다 그의 직역 성격이 더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소학언해》의

1) 황문환(2007)에서는 문헌 자료에 ‘밧 VP-매’를 비롯한 다양한 ‘밧 VP’ 구성도 많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범례와 발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1) 가. 戊寅本 欲人易曉 字義之外 並入注語爲解 故未免有冗繁處 今則刪去枝辭
一依大文 逐字作解 有解不通處 則分注解之 (《소학언해》 범례)
나. 萬曆乙酉春 設校正庭 選儒臣若干人 使之釐正舊本 刪去繁冗 逐字作解
要以不失文義爲重 皆上旨也 (《소학언해》 발문)

그리고 《소학언해》와 쉽게 대비할 수 있는 《번역소학》이 있기 때문에 ‘밋/밋’이 한문의 ‘及’을 직역한 산물²⁾의 성격을 더 분명히 例證할 수 있다. 또한, ‘밋/밋’[及]은 15세기의 용례가 극히 드물어 “各別히 四諦를 迷하면 二萬이 드외오 밋 一千 어울우면 二萬一千이니” <月釋13:18a>의 하나, “道國王과 밋 舒國王은(=道國泊舒國) <杜初8:5b>”의 하나, 모두 두 예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15세기 문헌에 비해 그 출현빈도가 높은 《소학언해》를 중심으로 ‘밋/밋’의 분포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힐 것이다.

2. ‘밋/밋’[及]의 분포 양상

앞에서 언급했듯이 ‘밋/밋’은 한문 원문의 漢字 ‘及’을 직역한 결과이다.³⁾

- 2) 이와 같은 표현은 다른 학자들이 한문을 지나치게 의식한 措辭로 삼아 轉移語라고 불려왔다. 안병희(1973: 80-1)에서 전이어(transitional word)란 한자 ‘以, 得’을 번역 차용한 ‘때, 시러곰’이나 ‘故’를 번역 차용한 ‘전초, 그럴씨’를 가리키는데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바뀌는 관계를 밝히는 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소위 지나치다는 정도가 애매한 점이 있기에 본고에서 전이어란 용어를 쓰지 않기로 하였다. ‘밋/밋’의 경우에 있어서 ‘와/과’ 뒤에 나타난 ‘밋/밋’이 지나치게 의식한 措辭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듯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의 ‘밋/밋’은 지나치게 의식한 措辭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원문 : 及卒...

가) 밋 죽음에 과연히 그 말 곧티니 <소학 5:99b>

나) 그 주구매 미치는 과연히 그 말와 ㄱ티니 <변소8:20b>

한문의 ‘及’이 가)에서는 ‘밋’으로 나타나고 나)에서는 용언 ‘밋-’으로 나타난다. 만약 가)의 ‘밋’을 지나치게 의식한 조사라고 한다면 나)에 있는 ‘밋-’의 어휘적 의미가 가)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의문이 된다. 필자는 이와 같은 표현은 전이어보다 축자역표현이나 특이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 3) 《소학언해》에서는 及이 아닌 若에 대응하는 용례도 발견되었다.
外姓 일운오란 반드시 곁오더 아모 姓 현갓 아자비며 밋 兄이라 呼며(=外姓尊長, 必曰某姓 第幾叔若兄) <小學6:74b>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원래 의역 자료에서 번역하지 않거나 혹은 접속조사 ‘와/과’, 연결어미 ‘-고’, ‘-며’ 등으로 번역된 ‘及’은 한문 원문에 충실하게 표현할 의도에서 다시 ‘및/및’으로 번역된 것이다. ‘및’의 이러한 성격은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비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원문 : 凡議婚姻 當先察其婿與婦之性行及家法如何

(2) 가. 물잇 혼인 의론호매 먼저 그 사회와 며느리의 턴성과 형덕과 [Ø]가무네
레법이엇던고 ㅎ야<飜小7:31b>

나. 물잇 婚姻 의론호에 반드시 먼저 그 사회와 다뭇 며느리의 턴성과 형실
과 밑 집 잇 법이 엇더흠을 슬피고<小學 5:64a>

원문 : 及夫人嫁呂氏

(3) 가. 夫人이 呂氏이 집의 며느리 되어오나<飜小9:7a>

나. 밑 夫人이 呂氏에서 서방 마자오나는<小學6:6b>

예문 (2),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문 원문의 ‘及’은 《번역소학》에서는 번역하지 않고 《소학언해》에서는 ‘및’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번역소학》에서 번역되지 않은 데 비해 《소학언해 권5,6》만 해도 ‘및/및’(이하 ‘및’만 표기함)으로 번역된 경우가 29번이나 된다.⁴⁾ 특히 《소학언해》의 예인 (2나), (3나)는 현대국어에서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이러한 예들은 중세국어, 한걸음 더 나아가 근대국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국어에서 ‘및’은 接續副詞로서 앞뒤 말을 잇는 接續機能을 하고 있다. 여기서 앞뒤 말이란 주로 명사구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주로 ‘NP1, NP2···, 및 NPn’의 형식으로 명사구를 접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세국어의 ‘및’은 현대국어의 ‘및’에 비해 그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어던 일이 잇거든 글월에 쓰고 허물이 이시며 밑 약속을 어그릇는 이룰 또 써 세 번 犯ㅎ야던
罰을 行호디(=有善則書於籍 有過若違約者 亦書之 三犯而行罰)<小學6:16a>

4) 《소학언해 권1-4》에서 나온 ‘및’의 용례를 합하면 33개나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의 《번역소학》 원문과 대조하여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5,6만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4) 가. 만일 喪事와 민 연구 이십을 위하야(=若爲喪事及有故하야)〈小學 5:54a〉
 나. 斯干詩에 날어쇼디 兄과 弟 아이 서러 스랑하고(=斯干詩에 言 兄及弟矣 | 式相好矣오)〈小學5:75b〉
 다. 이는 可히 고기즙과 肉 포육과 젓과 或 고기 적음애로 뼈 그 滋味를 도을 쏘이언딩(=可以肉汁及脯醢 或 肉少許로 助其滋味언딩)〈小學 5:51b〉
- (5) 가. 물윗 안히며 바기… 옷넙고 벼개와 산털 걷으며 방이며 텅이며 민 뜰홀 를 뿌리고 뿌러 듯질고 각각 그 일을 조출 디니라(=凡內外 | …衣服하고 斂枕簟하며 灑掃室堂及庭하야 布席하고 各從其事 | 나라)〈小學2:5a〉
 나. 外姓 얼운이란 반드시 굴오더 아모 姓 현젿 아자비며 밋 이이라 하며(= 外姓尊長이란 必曰 某姓 第幾叔若兄이라 하며)〈小學6:74b〉
- (6) 가. 가히 귀한 만 난 것과 盛하 차반을 방즈히 먹으며 민 사름 더불어 이바디 하야 즐기디 물홀 거시니(=不可恣食珍羞盛饌 及與人燕樂이니)〈소학 5:51b〉
 나. 그 居喪에 풍뉴 드르며 민 혼인하는 이는 나라히 正하 法이 인는디라(= 其居喪에 聽樂及嫁娶는 國有正法이라)〈小學5:52a〉
 다. 어딘 일이 잇거든 글월에 쓰고 허름이 이시며 민 약속을 어그릇는 이를 또 써 세 번 犯하야든 罰을 行호디(=有善則書於籍하고 有過若違約者를 亦書之하야 三犯而行罰호디)〈小學6:16a〉
- (7) 가. 구차히 祿과 利에 드라드는 줄을 병도이 니기더니 민 蘇취 湖취 두 고을 教授 | 되야는 법도와 약속을 嚴히 하야 몸으로 뼈 몬저 하야(=苟趨祿利하더니 及爲蘇湖二州教授하야는 嚴條約하야 以身先之하야) 〈小學6:8b〉
 나. 帝 | 允으로 히여곰 太子를 글 ㄹ르치더니 민 崔浩 | 스기 일로 뼈 잡피물 넘어는 太子 | 드려 닐러 굴오더(=帝 | 使允으로 授太子經하더니 及崔浩以史事被收하얀 太子 | 謂允曰)〈小學6:40a〉
 다. 令女 | 듣고 죽제 다시 갈로 뼈 두 귀를 버히고 살기를 상네 爽의게 의지하얏더니 민 爽이 버히를 넘어 曹氏 다 죽거늘(=令女 | 聞하고 卽復以刀로 截兩耳하고 居止를 常依爽하더니 及 爽被誅하야 曹氏盡死

커늘)<소학 6: 55>

(8) 가. 그 적의 張公이 이릇 待制로 河北都轉運使를 ्ह엇더라. 밑 夫人이 呂氏에 서방 마자오나논[아+논] 부인 어마님은 申國夫人의 형이라(=時에 張公이 已爲待制河北都轉運使矣러라 及夫人嫁呂氏호야논, 夫人之母는, 申國夫人姉也 | 라)<小學6:6b>

나. 哀 | 다 듣디 아니호더라. 밑 司馬氏 魏를 아사논[아+논] 哀 | 몸이 冥도록 일죽 西_L녁호로 향호야 안찌 아니호야 써 焔에 신하 되디 아닌 讎을 毆더라.(=哀 | 皆不聽호더라 及司馬氏纂魏호안 哀 | 終身未嘗 西向而坐以示不臣於晉)<小學6:24b>

(9) 가. 伯夷와 叔齊는 孤竹 님금의 두 아들이라 아비 叔齊를 세고져 호더니 冥 아비 죽음애 叔齊 | 伯夷의게 스양호대 伯夷갈오디 아비 命이라 호고 드디여 도망호야 니거늘(=伯夷叔齊는 孤竹君之二子也 | 라 父 | 欲立叔齊러니 及父卒애 叔齊 | 讓伯夷호대 伯夷이 曰 父命也 | 라 호고 遂逃去 | 어늘)<小學4:38>

나. 庫에 남은 지물이 잇쎄 호야 써 陛下를 저 毆리디 아니호리라 호더니 冥 죽음애 과연히 그 말 곧트니(=若死之日에 不使庫有餘粟호며 庫有餘財호야 以負陛下 | 라 及卒애 果如其言호니)<小學5:98b>

(10) 行檢을 힘쓰게 호야 써 풍속과 교화를 둔겁게 호고 冥 待賓지와 吏師지를 두며 觀光法을 세니 이 곧튼 이 쏜 두어 열 도건이러라(=勵行檢호야 以厚 風教호고 及置待賓吏師齋호며 立觀光法호니 如是者 | 亦數十條 | 러라)<小學6:15a>

예문 (4)는 ‘冥’이 접속 조사 ‘와/과’ 뒤에 쓰인 예들인데 현대국어에서 ‘冥’ 앞의 NP 뒤에 아무런 조사를 붙이지 않는 것과 대비가 된다. 그리고 (4다)에서 보듯이 ‘冥’ 뒤에 또 ‘NP1와 NP2’의 구조가 올 수 있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점도 현대국어와 다르다고 하겠다. 예문 (5)는 ‘冥’이 ‘며/이며’ 뒤에 쓰인 예들이다. 이 경우에 ‘며/이며’ 앞에 온 말이 명사라는 점은 예문 (6)의 ‘-며/-으며’ 앞에 온 말이 동사라는 점과 대조가 된다. 여기서 (5나)와 (6다)의 ‘冥’은 한자 ‘及’이 번역된 것이 아니고 ‘若’에 대응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예문 (7)은

‘밋’이 문두에 쓰인 예문들이다. 여기에서 ‘밋’이 관할하는 문장의 끝(문말)에 붙은 어미가 ‘-아는, -야’인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밋’으로 시작되는 문장 앞에는 연결어미 ‘-더니’가 결합된 문장이 온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러한 구성은 《소학언해》에 많이 나타난다. 예문 (8)은 (7)과 비슷하지만, ‘밋’ 앞에 ‘-더니’ 대신에 ‘-더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밋’이 시작된 문장 뒤에 역시 ‘-아는, -야’가 붙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7)과 (8)은 같은 유형에 귀속시켜도 무방할 듯하다. 예문 (9)는 ‘밋’ 뒤에 ‘VP+-(으)ㄴ+에’의 구성을 갖는 예문이다.⁵⁾ 그 앞에는 역시 연결어미 ‘-더니’가 나타난다. 예문 (10)은 ‘밋’과 연결어미 ‘-고’와 같이 쓰인 예문인데, 이 경우는 《소학언해》(1587)에서는 하나의 예만 발견되었다. 그런데 《번역소학》의 한문 원문에 달린 구결(口訣)과 대비해 보면 여기서 ‘-고’는 ‘-며’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0)번은 앞의 (6)번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셈이다.⁶⁾

- (11) 가. 勵行檢_호야 以厚風教_호며 及置待賓吏師齋_호며 <綱小9:17>
 나. 勵行檢_호야 以厚風教_호고 及置待賓吏師齋_호며 <小學6:15>

한문 원문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문 (11가)에서는 구결 ‘호며’를 사용하고 (11나)에서는 구결 ‘호고’를 사용한다.

이상의 예문을 중심으로 《소학언해》에 나타나는 ‘밋’의 분포 양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4) NP와 밋 NP
 (5) NP(이)며 밋 NP
 (6) VP_호며 밋 VP
 (7) S-더니 밋 S-아(는)

5) 이러한 구성은 근대국어에서 ‘-ㄴ’과 ‘에’가 연결한 ‘밋~ 때’로 많이 등장한다. 밋 지아비 죽으믄 들으매<女四4:35>, 밋 元兵이 城에 드러오매<女四4:33>, 밋 죽으매 향니 사름이 효조 스흘 세워 제호더라<五倫4:40>

6) 의역 문헌과 직역 문헌은 언해 내용상 차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문에 달린 구결 체제도 차이점이 나타난 경우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남광우(1997)에서 정리한 일이 있다.

及 葬_호에 亦如之_호느니 <綱小7:16b>
 及 葬_호야 亦如之_호며 <小學5:49b>

- (8) S-더라 및 S-아(는)
- (9) S-더니 및 S -ㅁ#애
- (10) VP하고 및 VP

이상 든 여러 유형 중에 (4), (5)는 NP를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시키는 예문들이며, (6)과 (10)은 VP를 대등적으로 결합시키는 예문들이다. 그러나 (7)~(9)의 경우, ‘및’이 시작된 節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면 후행절과 종속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前者를 對等型(A型)이라고 부르고 後者를 從屬型(B型)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對等型(A型) 중에서 (4), (5)와 (6), (10)은 각각 NP, VP를 대등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들을 또 NP 대등형(A-1형), VP 대등형(A-2형)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從屬型(B型)은 또 ‘및’이 시작된 절 뒤에 어미가 오느냐 조사가 오느냐에 따라 어미 종속형(B-1형), 조사 종속형(B-2형)으로 나눌 수 있다.⁷⁾ 그 분포 양상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대등형 (A형)	NP 대등형 (A-1型)	NP와 및 NP
		NP(이)며 및 NP
	VP 대등형 (A-2型)	VP하며 및 VP
		VP하고 및 VP
종속형 (B형)	어미 종속형 (B-1型)	-더니 및 S -아(는)
		-더라 및 S -아(는)
	조사 종속형 (B-2型)	-더니 및 S -ㅁ#애
		∅(없음)

B형에 있어서는 B-1형, B-2형의 경우를 감안하면 ‘-더라 및 ~ -ㅁ#애’와 같은 구조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소학언해》에는 그런 예가

7) 엄격히 말하면 조사 ‘애’가 붙은 경우는 종속절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일단 편의상 종속형에 귀속하기로 했다. 문장에서 부사어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면 부사어형이라 할 수 있을 듯하지만 또 대등형과 맞지 않는 개념이 될 문제도 생기게 될 것이다.

나타나지 않는다.⁸⁾

‘및’의 이러한 구조상의 특성은 한문 ‘及’의 문법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한문의 ‘及’은 앞뒤의 두 개 명사나 두 개 동사를 대등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가 하면 동사구(VP) 앞에 붙어 종속적인 접속 기능을 하기도 한다. (4)의 ‘兄及弟’, ‘肉汁及脯醢’, (5)의 ‘室堂及庭’은 모두 명사를 연결하는 용례들이고, (6)의 ‘食珍羞盛饌及與人燕樂’, (10)의 ‘勵行檢以厚風教及置待賓吏師齋’ 등은 동사구를 연결하는 예들이다. 예문 (7)~(9)는 한문 원문에서 보는 바와 같다. ‘及’이 동사구 앞에 쓰인 예문들이다(예: 及夫人嫁呂氏, 及父卒). 이와 같이 ‘及’자가 한문 원문에 있는 통사적 위치도 직역할 때 그대로 수용되는 탓에 ‘NP 및 NP, VP 및 VP’, 그리고 문두에 위치한 ‘및~’의 구조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듯 통사적 위치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는 것이 ‘및’의 뚜렷한 특징이 아닌가 한다.

3. ‘및/및’의 의미

박철주(2006)에서 현대국어의 ‘및’의 의미를 14개의 국어사전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들 사전에서는 공통으로 “그리고, 그 밖에, 또”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을 뿐, 이러한 의미를 벗어나는 다른 기술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을 열거함에 있어서 ‘및’이 쓰였다면 열거된 내용 중 어느 하나만 선택될 수는 없으며 그 모두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파란 공, 노란 공 및 하얀 공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는 이들 공 중에서 한 개나 두 개의 공이 아니라 열거된 공들을 모두 합한 세 개의 공을 가진 것이 된다. 현대국어에서 부사 ‘및’은 “and”의 뜻을 지니기 때문이다(박철주 2006:25). 중세국어 문헌에서 보이는 ‘및’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간략하게 이러한 의미를 “포함(and)”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포함”의 의미는 NP 대등형(A-1형)에서 제일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축차역 표현으로서의 ‘및’은 그 의미에 있어서 현대국어의 ‘및’과 동

8) ‘-더라 및 ~ 에’의 통사구조는 18세기 초기의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놈피 雲帆을 들고 豫章을 지나 노라 ㅎ엇더라 및 盧ㅣ 벼솔ㅎ야 도라오매 그 妻를 踪跡ㅎ되 엇디 못ㅎ더니 <女四4:23a>(1737)

일하지 않은 의미도 발견된다. 잠정적 결론이기는 하나 현대국어의 ‘및’에서는 볼 수 없는 “또는, 혹은”의 의미로도 사용된 경우가 있다. 이 의미를 “선택(or)”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와 같은 “선택” 의미는 NP 대동형의 일부 용례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대응되는 한자가 ‘及’이 아닌 ‘若’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 외에 문두에 쓰이는 ‘및’은 “어떤 행위를 실시하거나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이런 의미를 “時點 到達”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⁹⁾ 이와 같은 “선택(or)”, “시점 도달”의 의미는 현대국어의 ‘및’에는 없는 것으로서 매우 특이한 쓰임이라 할 것이다.

3.1. “포함(and)”의 의미

중세국어의 ‘및’은 현대국어의 ‘및’과 마찬가지로 “포함(and)”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포 양상으로 현대국어의 ‘및’과 달리 A-1형, A-2형에 다 나타난다. 예문 (4나), (4다), (5가)는 A-1형의 경우이며 (6가), (6나), (10)은 A-2형에 속한 경우이다.

‘및’의 이런 용법은 2개의 용례만이 나타나는 15세기 국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2) 가. 道國王과 및 舒國王은 實로 親흔 兄弟나라(=道國洎舒國)<杜註8:5b>
 나. 各別히 四諦를 迷흐면 二萬이 드외오 및 一千 어올우면 二萬一千이니
 <月釋13:18a>

(12가)는 道國王과 舒國王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양자를 다 포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12나)는 문맥에 의하면 현대국어의 “그리고, 또”와 비슷한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즉 ‘二萬이 되고 그리고(또) 一千을 합하면 二萬 一千이다’라는 뜻이 된다.

9) 여기의 “時點 到達”은 완벽한 개념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B형 중의 ‘및’이 관할하는 문장을 축자역이 아닌 ‘~에 미처는’인 경우에 비춰 보면 “到達”의 의미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대국어에서 “~때 이르러서(는)”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고려해서 여기서 일단 “시점 도달”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경우의 “포함”의 뜻이 ‘및’에 의해 실현되는 것인지, ‘과’에 의해 실현되는 것인지는 아직 最終 결론을 내리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及’은 ‘와/과’로 번역되기도 하므로, (12가)의 포함의 의미는 ‘와/과’에도 나타나고, ‘및’에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A와 및 B’의 구성은 뒤에 어떤 것은 ‘A와 B’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A 및 B’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이 ‘및’과 ‘와’가 의미가 달라졌음을 시사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현대국어에서 ‘A와 B와 C’란 표현과 ‘A와 B 및 C’란 표현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자의 경우, A, B, C는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 C는 A, B보다 副次的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예문 (4다), (5가)를 살펴보자.

(4) 다. 이는 可히 고기즙과 민 포육과 젓과 或 고기 적음애로 뼈 그 滋味를 도을 썬이언딩(=可以肉汁及脯醢 或 肉少許로 助其滋味언딩)<小學 5:51b>

(5) 가. 물읷 안히며 밧기… 옷넙고 벼개와 산톨 건으며 방이며 텅이며 민 뜰홀 를 쓰리고 쓰러 돛실고 각각 그 일을 조출 디니라(=凡內外 | …衣服호고 斂枕簟호며 灑掃室堂及庭호야 布席호고 各從其事 | 나라)<小學2:5a>

(4다)의 ‘고기즙과 민 포육과 젓과’는 ‘민’이 있기 때문에 [[고기즙과] 민 [포육과 젓]]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에 《번역소학》에서 ‘및’이 나타나지 않은 ‘고기즙과 포육과 젓’<翻小7:18b>인 경우는 표면적으로 *[[고기즙과] [포육과 젓]]의 구조로 분석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5가)의 ‘방이며 텅이며 민 뜰홀’은 [[방이며 텅이며] 민 [뜰홀]]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는데 만약 ‘민’이 없다면 그런 분석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한문 원문의 ‘及’의 의미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문의 ‘及’이 여러 명사를 연결할 수 있으나 ‘及’에 의해 연결된 명사들은 그 문법적 지위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지위가 다른 경우가 있다.¹⁰⁾ 지위가 다른 경우란 여러 명사 중에서 ‘及’ 앞의 명사를 강조한다는 것

10) 呂叔湘(1999:286)에서는 연결시킨 명사들 중에서 앞의 성분을 더 강조한다고 지적하였다(連接的詞語里,意思重點在及前). 人員, 圖書, 儀器 及 其他(인원, 도서, 측정기 및 기타). 主機

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앞뒤의 명사는 대등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及’의 이런 용법은 ‘及’을 직역한 ‘및’도 전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용법은 ‘A와 및 B’의 구조에서 왜 어떤 경우는 ‘와’가 소멸되며 어떤 경우는 ‘및’이 소멸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4다)와 (5가)는 ‘및’과 ‘와’가 의미에 차이점이 있음을 보여 준 전형적인 용례라 하겠다. 여기서 일단 ‘와’가 나타내는 “대등적 포함”과 구별하여 ‘및’이 나타내는 “포함”을 “副次的 包涵”이라고 정의하기로 하겠다. 예문 (4나)의 ‘兄과 및 아오’는 현대국어에서 ‘兄과 아오’가 가능하지만 ‘兄 및 아오’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뒤의 ‘서러 스랑호고’란 표현을 보면 ‘兄’과 ‘아오’는 대등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4다)의 ‘고기즙과 및 포육과 젓과’는 현대국어에서 ‘고기즙 및 포육과 젓’으로 해석한 것은 ‘및’ 뒤에 있는 명사구는 부차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3.2. “선택(or)”의 의미

중세국어의 ‘및’이 “선택”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현대국어의 ‘및’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 준다. 다시 예문 (4나), (5나), (6다)를 살펴보자.

- (4) 가. 만일 喪事와 및 연구 이심을 위호야(=若爲喪事及有故)<小學5:54a>
- (5) 나. 外姓 얼운으란 반드시 곁오더 아모 姓 현젿 아자비며 및 兄이라 호며(=外姓尊長, 必曰 某姓 第幾叔若兄)<小學6:74b>
- (6) 다. 어딘 일이 잇거든 글월에 쓰고 허물이 이시며 및 약속을 어그릇는 이를 또 써 세 번 犯호야든 罰을 行호디(=有善則書於籍 有過若違約者 亦書之三犯而行罰)<小學6:16a>

(4가)는 父母의 居喪 때에 나갈 이유로서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되어야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의 하나만 성립되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및’은 열거된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兩者擇一인 “선택”의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번역소학》에서도 실마리

及 備用件(매인 기계 및 예비품).

를 찾을 수 있다. 같은 한문인데 《번역소학》에서는 ‘허다가 상시어나 다른 연고를 위하야<번역소학 7:20b>로 번역되어 있다.

고대 중국어는 한 음절이 바로 한 단어인 경우가 많다. (5나)의 한문 원문을 보면 ‘尊長’은 ‘尊’과 ‘長’ 두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언해문의 ‘외姓 일운으란’인 표현을 보면 주어는 분명히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사람에게 동시에 ‘아자비, 兄’이라고 부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의 ‘밋’은 역시 “선택(or)”의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¹¹⁾

(6다)도 ‘허물이 잇거나 약속을 어그릇다’로 해석해야 한다. 이것은 (4나)와 마찬가지로《번역소학》의 언해문 ‘허물 잇거나 또 언약을 어그릇치허리틀’<번역소학9:18a>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5나)의 ‘밋’, (6다)의 ‘밋’은 ‘及’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 ‘若’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은 흥미로운 점이다. ‘若’자가 “選擇”을 나타내는 용례는 한문에서도 중세국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13) 가. 請君若太子來(청컨대 임금이나 태자가 오소서)<左傳·哀公十七年>
나. 日常一食, 若晝若夜, 無有定時(매일 항상 한 끼만 먹는데 낮이나 밤이나 정한 시간이 없다)<梁書·賀琛傳>

(14) 가. 善男子 | 허다가 넘거나 허다가 외오거나 허다가 쓰거나 허다가 摹하거나 허다가 츠거나 허다가 ㄹ초아 여러 색으로 공양하면(=是善男子 若讀 若誦 若書 若寫 若帶 若藏 諸色 供養)<楞嚴7:50b>

나. 허다가 善男子 善女人이 阿彌陀佛 닐오믈 들쭈고 일후를 디니스바 흘리어나 이트리어나 사으리어나 나으리어나 다췌어나 여췌어나 닐웨어나 흐므스므로(=若有善男子善女人 聞說阿彌陀佛 執持名號 若一日 若二日 若三日 若四日 若五日 若六日 若七日 一心不亂)<阿彌陀經 諺解17ab>.

(13)은 한문의 예문이고, (14)는 언해 자료이다. (14)는 ‘허다가 ~-거나’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14나)는 ‘허다가가 나타나지 않고 ‘-어나’만 나타나는

11) 여기의 尊長은 만약 ‘尊과 長’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뒤의 ‘叔若兄’은 ‘형제 아자비와 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밋’은 “선택(or)”라는 의미가 아니고 “포함(and)”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것은 (14가)와 다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택”을 나타내는 ‘耑’ 자는 《소학언해》에서 왜 ‘밋’으로 표현됐는지, 또 《번역소학》의 ‘-어나’<7:20b>, ‘-거나 또~’<9:18a>는 어떻게 ‘-며 밋~’의 구조로 변했는지도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3. “時點 到達”의 의미

앞의 예문 (7)~(9)에서 보였듯이 文頭에 쓰인 ‘밋’은 A형 중에서 접속 부사로 쓰인 ‘밋’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이 경우의 ‘밋’은 그 품사로서의 성격이 무엇인지 문장에서 어떤 성분으로 쓰였는지도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다.¹²⁾ 이는 ‘밋’이 한문의 ‘及’이 나타내는 문법적 관계를 모두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及’의 새김(訓)만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王海藻 외(1996:150)에 의하면 ‘及’은 動詞句(VP)나 節 앞에 쓰여 동작이 실현되거나 어떤 상황이 출현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한다. 현대국어에서는 ‘~때에 이르러(서는)’란 뜻에 해당한다. 예문 (15)는 한문의 예문들이다.

- (15) 가. 及其長也 無不知敬其兄也<孟子·盡心上>
나. 及與秦人戰, 大敗之<韓非子·內儲說上七術>

(15가)는 ‘其長’(주어+서술어)이란 節 앞에 쓰인 경우인데 ‘그가 장성함에 이르러서는’으로 해석할 수 있다. (15나)는 動詞句 앞에 쓰인 경우인데 ‘秦인과 싸움을 할 때’ 혹은 ‘秦인과 싸움함에 이르러서는’으로 해석할 수 있다. ‘及’의 이러한 용법은 예문 (7)~(9)에서 보는 것처럼 ‘밋~ VP아는’, ‘밋~ VP아’, ‘밋~ VP-口#애’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이 “時點 到達”의 의미는 ‘밋’ 자체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밋’으로 시작된 ‘밋~ VP아’, ‘밋~VP아는’, ‘밋~

12) ‘밋~ 아(는)’의 구조를 현대국어의 ‘비록~ -지만, 만약~ -면, 만일~ -면’ 등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의 ‘밋’은 ‘비록, 만약, 만일’ 등과 비슷한 쓰임새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일단 부사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국어에서 ‘비록, 만약, 만일’은 조응표현(照應表現)임을 비취 보면 중세국어에서 문두에 쓰인 ‘밋’도 한가지의 조응표현이 아닌가 싶다. 이 점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VP-□#애'의 통사구조 전체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라 하겠다.

4. 맺는말

본고는 《소학언해》의 용례를 중심으로 하여 ‘및/및[及]의 분포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봤다.

현대국어의 ‘및’은 그 분포가 단순해 보이지만 《소학언해》에서 나온 ‘및’의 분포는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접속 부사로 쓰인 ‘및’은 선행절과 후행절을 대등적으로 접속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文頭에 쓰인 ‘및’은 접속 부사로서의 ‘및’과 성격을 달리한다. 접속 부사의 경우 對等型(A型)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명사구(NP)를 대등 자격으로 연결하는 유형(A-1)도 있는가 하면 동사구(VP)를 대등적으로 연결하는 유형(A-2)도 있다. 문두에 쓰인 ‘및’은 從屬型(B형)이라고 부르는데 또 ‘및’ 그 뒤에 어미 ‘-아(는)’이 오느냐 조사 ‘애’가 오느냐에 따라 어미 종속형(B-1型)과 조사 종속형(B-2형)으로 나누어졌다. 그 중에 B-1型的 경우를 감안하면 B-2型에 對稱的으로 ‘-더러 및 ~ -애’와 같은 구조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데 《소학언해》에는 그런 예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구조는 18세기 초기의 문헌에 등장되었다.

《소학언해》중의 ‘및/및’은 현대국어의 ‘및’과 같이 “그리고, 그 밖에, 또”의 의미, 즉 “포함(and)”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 “포함”의 의미는 ‘와’가 나타내는 “대등적 포함”과 다르므로 여기서 일단 “부차적 포함”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 외에 현대국어의 ‘및’이 나타낼 수 없는 “또는, 혹은”, 즉 “선택(or)”의 용법도 있다. 이러한 의미 해석은 《번역소학》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이 경우에 “선택”의 뜻이 ‘及’이 아닌 ‘若’에서 온다는 점은 흥미로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文頭에 온 ‘및’은 뒤의 ‘VP아(는), VP-□#애’와 같이 “시점 도달”을 나타내는데 현대국어의 ‘~때에 이르러(서는)’과 비슷한 의미로 파악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및’의 분포 양상이나 의미는 절대 본고에서 소개한 것만 아니다. ‘및’은 《소학언해》뿐만 아니라 중세국어의 다른 문헌, 그리고 근대국어 문헌에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분포 양상의 경우, A형은 아직 많이 나타나고 B형은 더 다양하게 나타난

다. 예를 들어 ‘밋 디면흐시면 그만 두어(=及見了面, 也罷了)’<紅樓46:11>, ‘즉시 이 막음을 니여 밋 언덕의 오르매(=卽起謀心, 及上岸)’<包公 黑痣 8:37>, ‘밋 니당자의 집의 니르니(=及到李長者家)’<包公8:41> 등에서 ‘밋--면’, ‘밋~-매’, ‘밋~-니’의 구조도 나타났다. 원래 意譯인 ‘VP매 미쳐(는)’의 구조는 직역한 경우에 ‘밋~ VP어(는)’로 변환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뒤의 문헌에는 ‘밋~VP기에 미쳐는’의 이중 구조로도 나타난다(밋 진병이 성하의 니르기의 미쳐는=及至城下)<孫龐4:95>.

의미의 경우, 앞에서 말했듯이 ‘-거나 또~’의 의미가 어떻게 ‘-며 밋~’에 의해 실현되었는지가 문제이다. 그리고 앞에서 잠정적으로 ‘밋’이 “부차적 포함”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번역소학》에서는 어찌하여 이런 “부차적 포함”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로만 나타났는지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A와 밋 B’의 구성이 ‘A와 B’로 바뀌었다든가 ‘A 밋 B’로 바뀌었다든가 그 변화 기제(機制)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규명해야 할 문제이다.

다시 말하자면 ‘밋/밋’의 분포 양상이나 의미나 전면적으로 파악하려면 더 폭넓은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다른 특이표현에 대한 연구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1996), 《개정판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 고정의(1992), 대명률직해의 이두 연구, 단국대 박사 논문.
- 金炯哲(1988), 19세기말 국어의 문체, 구문, 어휘의 연구, 경북대 박사 논문.
- 남성우(1997), 《번역소학》권6과 《소학언해》권5의 번역, 《구결연구》 2.
- 남풍현(1971a), ‘ᄃ다갸’攷: 국어에 미친 중국어의 문법적 영향의 한 유형, 《어학연구》 7.1.
- 남풍현(1971b), 15세기 문헌에 나타난 중국어의 문법적 영향과 호응관계 형성에 대한 고찰, 《한양대 논문집》 5.
- 남풍현(1974), 13世紀 奴婢文書의 吏讀, 《단국대 논문집》 8.
- 朴圻璿(1988), 《월인석보》권 15와 《법화경언해》권4의 문체 비교 연구. 한국외대 박사 논문.
- 박재연(2002), 《中朝大辭典》권3, 선문대 출판부.
- 박철주(2006), 《대명률직해》에 쓰인 이두 ‘갸’의 의미, 《언어과학연구》제38집.
- 송철의 외(2006), 《역주 오류행실도》, 서울대학교출판부, P.747.
- 안병희(1992), 《국어사 자료 연구》, 文學과 知性社.
- 이익섭(2000), 《국어학개설》, 學研社.
- 이태영(2000), ‘興’의 번역과 관련된 문법화 연구, 《언어》, 한국언어학회.
- 황문환(2007), 《도야괴문》의 어휘적 고찰, 《도야괴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 呂叔湘(1999), 《現代漢語八百詞 增訂本》, 商務印書館.
- 王海棻 외(1996), 《古漢語虛辭辭典》, 北京大學出版社.

中文摘要

众所周知，现代韩国语的“및”作为连接两个或者几个名词句（NP）的接续副词，其用法相对单纯。但是上溯到中世国语，我们不难发现“및”的分布情况和意义与现代韩国语存在较大的差异。“및”是谚解汉文时直译汉文“及”造成的结果。因此本文以直译特点突出的《小学谚解》为例，详细阐明了中世国语中的“및”的分布情况和意义。根据“및”前後连接的成分的关系，或者由“및”引导的分句和後面分句的关系，将“및”的分布情况分成对等型（A型）和从属型（B型）两种类型。对等型中又根据连接成分的性质分成名词句对等型和动词句对等型。从属型中根据“및”引导的分句後面连接的成分不同分为助词从属型和语尾从属型。现代韩国语的“및”表示“包括，包含”的意思。在中世国语中也能发现这种用法。但是中世国语中的“및”还能表示“选择”和“到达某一时间”的意思。这种用法和现代韩国语迥异。当然这也是由於“및”是直译汉文“及”而造成的结果。

关键词：直译，对等型，从属型，包括，选择，到达某一时间

이 논문은 2008년 5월 14일에 투고되었으며, 2008년 7월 8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